

한-케냐 인프라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6월 2~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USD)	129	129	2025.6월
인플레이션(%)	3.8	4.1	2025.5월
CPI(points)	145	144	2025.5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65.5	72	2024년

출처:trading economics

○ 케냐 재정법안 2025, 국민 의견 수렴 마무리 단계 진입¹⁾

- 케냐 국회 재정위원회는 재정법안(Finance Bill) 2025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.
- 동 법안은 디지털 자산 과세 조정, 전자조달 시스템(e-procurement)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및 행정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.
-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와 시민들은 법안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, 권리 기반의 재정정책 접근을 촉구.
- 국가 부채 증가와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 문제가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.

○ 케냐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치인 103억 달러 기록²⁾

- 윌리엄 루토 대통령, 2025년 5월 8일 기준 케냐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인 103억 달러에 도달했으며, 이는 4.6개월분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발표.
- 루토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건전한 재정 운영과 농업, 건설, 보

1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kenyans-give-views-on-finance-bill-2025/>

2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kenya-foreign-reserves-amount-2025-ruto-announcement/>

건, 소매 등 주요 경제 부문의 기여 덕분이라고 설명함.

- 케냐중앙은행(CBK)은 외환보유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수출 증가와 2024년 기준 14% 상승한 51억 달러 규모의 재외국민 송금 확대를 지목.
-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9.6%에서 2025년 3.8%로 급감했으며, 국제 통화기금(IMF)은 올해 케냐가 에티오피아를 제치고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전망.

○ 세계은행, 케냐에 화석연료 탄소세 도입 촉구³⁾

- 세계은행은 케냐 정부에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.
- 제안된 탄소세는 휘발유, 디젤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,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부합함.
- 본 권고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.
- 세계은행은 탄소세가 청정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, 케냐가 국제 기후협약 하에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.

○ 세계은행, 반부패법 우려로 케냐에 대한 960억 KES 대출 집행 연기⁴⁾

- 세계은행, 케냐의 반부패 관련 법률에 대한 우려로 KES 960억 규모의 대출 집행 연기.
- 특히, 세계은행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‘이해충돌 방지법 (Conflict of Interest Bill)’ 을 수정할 것을 케냐 정부에 권고하고 있음.
-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은행이 재정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.
- 현재 케냐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대출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음.

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kenya/central-bank-confirms-50bn-loan-to-kenya-but-will-delay-disbursement-until-the-conflict-of-interest-bill-is-amended>

4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world-bank-delays-sh96bn-kenya-loan-on-graft-bill-5069170>

○ 루토 대통령 집권 1,000일, 국가부채 11조 실링 돌파... “공약이 아닌 악성 부채” 5)

- 루토 대통령 정부는 집권 1,000일 만에 국가 부채 11조 케냐 실링을 초과하며, 과도한 차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케냐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, 긴축 재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함.
- 공약했던 주요 개발사업 상당수가 미이행된 가운데, 관련 예산이 부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면서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 상황.
-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루토 대통령의 경제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.

○ 케냐, 9월 IMF와 신규 금융지원 협상 추진6)

- 케냐 정부는 2025년 9월, 경제 안정과 부채 관리를 위해 IMF와 신규 금융 지원 프로그램 협상을 추진할 예정.
- 이번 협상은 ‘2026년 4월 종료 예정인 36억 달러 규모의 기존 확대신용 제도(ECF)’를 대체하는 것으로,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.
- 정부는 GDP 대비 70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부채, 케냐 실링 환율 안정에 대한 압박 속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 확보를 목표로 함.
- IMF 자금은 예산 지원과 투자자 신뢰 유지에 핵심적이나, 향후 긴축 재정 가능성에 따라 국내 여론의 반발도 우려됨.

○ KenGen, 400억 실링 규모 탄소배출권 판매 재개7)

- 케냐 국영 전력회사 KenGen, 익명 구매자와의 초기 거래 결렬 이후, 총 400억 실링 규모의 탄소배출권 판매를 재개.
- 해당 배출권은 지열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탄소 감축분으로, 국제 기후 자원 흐름과 부합함.
- 이번 재판매는 케냐 정부의 녹색에너지 투자 확대와 파리협정에 따

5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ruto-1-000-sh11trn-and-counting-ruto-s-promise-becoming-a-bad-debt-5075384#story>

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to-push-for-new-imf-funding-in-september-5077706>

7) 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markets/commodities/ken-gen-relaunches-sh4bn-carbon-credit-sale-after-deal-collapses-5070132#google_vignette

른 기후 행동 이행의 일환.

- 거래가 성사될 경우, KenGen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.

② PPP 관련 동향

- 케냐-프랑스, KES 120억 전력망 사업 통해 에너지 협력 강화⁸⁾
 - 케냐와 프랑스는 프랑스개발청(AFD) 및 프랑스 재무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총 8,270만 유로(KES 120억 규모)가 투입되는 국가 전력통제센터(NSCC)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협력을 강화함.
 - 해당 사업은 GE 버노바(GE Vernova)와 라르센앤티브로(Larsen & Toubro)가 공동 수행하며, 실시간 전력망 감시 및 재생에너지 통합 역량 강화를 통해 케냐 전력망의 현대화를 목표로 함.
 - 사업에는 엠바카시(Embakasi) 및 수스와(Suswa) 지역에 설치되는 고급 SCADA/EMS 및 EAM 시스템이 포함되며, 이는 케냐의 지능형 전력 인프라 구축 의지를 반영함.
 - 본 사업은 동아프리카전력폴(EAPP) 체계 하에서 역내 전력망 통합 및 국가 간 에너지 거래를 위한 EU의 전략과도 일치함.
- 프랑스 측 압박으로 케냐, 미착공 도로사업에 KES 62억 보상⁹⁾
 - 케냐 정부는 나이로비-나쿠루 고속도로 PPP 사업(총 13억 유로 규모)을 중도 해지한 뒤,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프랑스 컨소시엄에 KES 62억을 보상하기로 합의함.
 - 계약 해지 배경에는 예상 교통량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있었으며, 계약 재조정 시도는 최종적으로 결렬됨.
 - 빈치 고속도로(Vinci Highways)와 메리디엄(Meridiam)으로 구성된 프랑스 컨소시엄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.

8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6/kenya-france-deepen-energy-cooperation-with-sh12bn-grid-project/>

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how-french-threats-forced-kenya-to-pay-sh6-2bn-for-failed-road-5068252>

- 이번 사례는 국제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성과 재정적 책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줌.

○ 마우서밋 도로사업 입찰에 中 기업 2곳 참여 - 케냐 고속도로청(KeNHA) 발표¹⁰⁾

- 케냐 고속도로청(KeNHA)은 리로니-마우서밋(Rironi-Mau Summit)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중국 도로교량공사(CRBC)와 산둥 하이스피드 도로교량공사(Shandong Hi-Speed Road and Bridge Company) 등 2개 중국 기업이 민관협력(PPP) 방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힘.
- 이는 앞서 프랑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높은 통행료 책정 및 재정 리스크 우려로 해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.
- 본 사업은 총 175km 구간을 복선 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며, 2025년 7월 착공이 예정됨.
- 정부는 사업 총비용을 기존 KES 1,800억에서 약 KES 900억 수준으로 절감해 사업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대중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.

○ 무다바디 장관, 중국 방문·농업·창의산업·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¹¹⁾

- 케냐의 무살리아 무다바디 국무총리(Prime Cabinet Secretary)가 중국을 공식 방문, 농업, 창의산업,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.
- 무다바디 장관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벼 재배 기술을 견학하고, 개량 종자와 재배 방식 도입 시 케냐의 벼 생산량이 최대 3배 증가할 수 있다며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언급함.
- 중국의 창의경제 모델을 분석하고, 케냐 청년들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함.
- SANY Silicon Energy와의 회담에서는, 케냐 내 태양광 제조 투자 가능성을 협의하며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서의 케냐의 위상 제고 방안을 모색함.

10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construction/kenha-reveals-two-firms-angling-mau-summit-road-tender-5080092>

11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6-10-photos-mudavadi-in-china-for-ministerial-talks-to-strengthen-cooperation>

○ 케냐, 새 회계연도 전 중국과 핵심 금융 협정 체결 압박¹²⁾

- 케냐 정부는 경제적 압박과 부채 상환 부담 속에서 7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이전에 중국과의 핵심 금융 협정을 최종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.
- 해당 협정은 무살리아 무다바디(Musalia Mudavadi)의 방중 기간 중 논의되었으며, 루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나눈 이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, 인프라 금융, 무역, 양허성 대출을 포함함.
- 케냐는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관세 문제로 인해 냉각되는 가운데,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모색중.
- 주요 협력 프로젝트에는 표준게 철도(SGR)의 키수무(Kisumu) 및 말라바(Malaba)까지 연장, 나이로비-마우 정상(Nairobi-Mau Summit) 간 도로 확장(이중화), 케냐산 제품의 중국시장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됨.

○ 케냐 정부, 투르카나 유전 개발계획 6월 30일까지 승인 예정¹³⁾

- 케냐 정부는 텔로우 오일(Tullow Oil)이 주도하는 투르카나 유전 프로젝트의 수정된 개발계획을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승인할 예정.
- 개발계획에는 중앙 처리 시설 및 라무(Lamu)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포함하여, 하루 12만 배럴의 상업적 원유 생산을 목표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.
- 해당 프로젝트는 2012년 석유 발견 이후 여러 차례 지연되었으며, 이번 일정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케냐의 석유 자원 수익화 및 에너지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도로·교량 예산, 9개월간 42% 급증¹⁴⁾

- 케냐 재무부는 2024/25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도로 및 교량 예산을

12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21429/kenya-pushes-china-to-seal-key-pact-ahead-of-new-financial-year>

1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state-to-clear-turkana-oil-output-plan-by-june-30-5076788>

14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treasury-funding-for-roads-bridges-surge-42pc-in-nine-months-5066000>

전년 동기(기존 KES 834억) 대비 42% 증가한 KES 1,187억으로 확대함.

- 이번 예산 확대는 윌리엄 루토 대통령 정부가 재정 제약 속에서도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.
- 이를 위해 케냐 정부는 연료세 수입을 담보로 상업은행으로부터 단기 자금 6억 달러를 조달하여 긴급 도로 공사 사업에 투입함.
- 인프라 개발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민간 사모 채권 발행 또는 신디케이트론 조달 방안도 모색 중.

○ 케냐-에티오피아, 국경 간 인프라 개발 협정 체결¹⁵⁾

-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‘아프리카의 뿔(동부 지역) 관문 개발 프로젝트(Horn of Africa Gateway Development Project)’의 일환으로 국경 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,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함.
- 이번 협정에는 라마(Rhamu)와 수프트(Suftu) 지역의 다와강(River Dawa)에 두 개의 신설 교량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접경 지역 주민의 보건·교육·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- 라마 지역에 일괄 통관 국경사무소(One-Stop Border Post)를, 수프트에는 무역 지원 센터(Trade Facilitation Centre)를 각각 설치하고,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광섬유 연결망 개선도 함께 추진됨.
- 해당 협정은 IGAD의 Vision 2050 및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(AfCFTA) 프레임워크와 부합하며, 지역 통합, 국경 통과 시간 단축, 사회경제적 발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.

○ EU, 몸바사 무와체(Mwache) 수자원 사업에 자금 지원¹⁶⁾

- 유럽투자은행(EIB)은 케냐 몸바사 지역의 무와체 수자원 개발 사업에 자금 지원을 결정함. 이는 연안 지역 주민의 깨끗한 식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.
- 현재 연안 수자원 개발청(CWWDA)이 본 사업을 시행할 시공업체 선정 절차 진행 중.
- 사업 내용에는 48km 이상의 송수관 설치, 저수 저장소 건설, 염소소독 시설 구축, SCADA(자동 제어 시스템) 설치 등이 포함됨.

15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kenya-ethiopia-agree-to-build-cross-border-infrastructure-5071286>

16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6/eu-bank-to-fund-mwache-water-project-in-mombasa/>

- 2026년 7월 착공, 2029년 7월 완공 예정이며, 소외 지역의 물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기대됨.
- 지켜지지 않은 약속: 키수무의 좌절된 폐기물 재활용 플랜트 꿈¹⁷⁾
 - 키수무 카운티는 3년 전 카촉(Kachok) 쓰레기 매립지를 이전한 뒤, 폐기물을 비료 및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재활용 플랜트 건설을 약속했으나,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음.
 - 지연의 주된 원인은 실패한 민관협력사업(PPP)으로, 최근 입찰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주민들은 악취, 일자리 상실 등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, 신규 부지는 또 다른 무단 매립지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음.
 - 플라스틱 오염은 규제의 미흡한 집행과 저렴한 대체재 부족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.

④ 정치 동향

- 모리타니 경제학자 시디 울드 타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제9대 총재 선출¹⁸⁾
 - 모리타니 출신 경제학자 시디 울드 타가 나이지리아 출신 아킨우미 아데시나 총재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의 제9대 총재로 선출됨.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연례 총회 3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의 76.18%, 지역 투표의 72.37%를 확보하며 당선됨.
 - 타 총재는 35년 이상의 아프리카 및 국제 금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아프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아랍은행(BADEA) 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임하면서 은행 자산을 4배로 확대하고 AAA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등 변혁을 이끈 바 있음.
 - 현재 AfDB는 미국의 5억 5,500만 달러 자금 삭감과 연간 4,000억 달러가 넘는 아프리카 인프라 금융 격차를 메우기 위해 250억 달러

17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health/broken-promises-kisumu-s-failed-dream-of-a-waste-recycling-plant-5070232>

18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companies/mauritanian-sidi-ould-tah-to-succeed-adesina-at-afdb-5061900>

를 조달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.

- 타 총재는 걸프 국가들과 기타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며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.
- 2025년 9월 1일 공식 취임하며 5년 임기를 수행할 예정으로,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AfDB를 이끌고 아프리카 개발 의제를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함.

○ 전국 카운티에 형평성 있는 재정 배분 요구¹⁹⁾

- 케냐 전역의 47개 카운티가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국고 이전 재원을 지원받았음에도, 일부 상원의원들은 600억 실링 미만을 배정받은 카운티들에 추가 배정을 요구함.
- 케냐 재정배분위원회(Commission on Revenue Allocation)가 제안한 제4차 재정배분 공식에 따르면, 인구 비중이 더 높은 주가 더 많은 재원을 배정받게 되며, 인구 지표는 기존 18%에서 대폭 상향되어 전체 배분액의 42%로 조정될 예정.
- 이 공식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, 균등 배분 몫은 전체의 22%로 축소되고, 나머지는 빈곤율(14%), 소득격차(13%), 지리적 면적(9%)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책정될 예정.
- 이로 인해 전체 카운티의 절반 이상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재원을 배정받게 되며, 해당 지역 주지사들은 이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공정을 지적

○ 젠지(Gen Z) 시위에 바뀌는 예산안...Mbadi, 정치적 줄타기²⁰⁾

- 젠지(Gen Z)의 항의 시위로 인해 케냐 정부는 2024년 재정법안(Finance Bill)을 대폭 수정하였으며, 총 3,140억 실링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를 단행하며 민심 수습에 나섬.
- 국회 소수당 원내대표 오피요 완다이(Opiyo Wandayi)는 청년 주도의

19) https://nation.africa/kenya/blogs-opinion/editorials/be-fair-to-all-counties-5066836?utm_medium=personalized-push&utm_source=taboola

20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finance-bill-target-cut-by-sh314bn-after-gen-z-riots-5078210>

시위가 재정 정책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 속 균형 잡기를 이어가고 있음.

- 수정된 예산안은 긴축 재정을 우선시하며, 필수 사회복지 예산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됨.
- 이번 시위는 경제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, 케냐 정치 및 재정 구조에 변화를 예고함.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Rironi-Mau Summit Road Upgrade Project 21)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(KeNHA)
- (도 급 사) 이전 계약자: Vinci Highways SAS(계약 해지), 현재 입찰자: 중국 도로 교량공(CRB)와 국민사회보장기금(NSSF) 협력, 산둥 하이-스피드 도로교량국제공정유한공사 등
- (사 업 비) KES 90 billion (USD 700 million)
- (편 당) 민관협력사업(PPP)
- (사업내용)
 - A8 고속도로 리로니-마우 서밋 구간 175km를 4차선 왕복도로 (혼잡구간은 6차선)로 확장
 - 리로니-마이마히우-나이바샤(남부 A8) 58km 구간 보강 및 유지관리
 - 나쿠루 시내 4km 구간 고가도로 신설
 - 국가 통행료 정책에 따른 톨게이트 설치
- (추진현황)
 - 2020년 10월: 케냐 정부는 프랑스 컨소시엄(Vinci Highways SAS, Meridiam Infrastructure Africa Fund, Vinci Concessions SAS)과 Rironi-Mau Summit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총 13억 유로 규모의 PPP 계약 체결
 - 2024년 4월: 예상 교통량에 따른 재정 리스크 및 높은 통행료에 대한 우려로 해당 계약 해지
 - 2025년 5월: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으로 프랑스 컨소시엄에 KES 62억 지급
 - 2025년 6월: 케냐도로청(KeNHA), CRBC-NSSF 컨소시엄과 Shandong Hi-Speed Road & Bridge International Engineering Co. Ltd.로부터 새로운 PPP 제안 접수
 - 2025년 7월: 착공 예정, 준공 목표 시점 2027년 7월.

○ (주요상황)

- 총사업비는 기존 KES 1,800억에서 KES 900억으로 절감된 규모로 조정
- 새로운 PPP 모델은 수익성과 통행료 부담 간 균형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부담 최소화 목표
- 정부는 본 사업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21) https://www.constructionkenya.com/5250/nairobi-mau-summit-road-project/?utm_source=chatgpt.com

② Horn of Africa Gateway Development Project (HOAGDP)²²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IGAD
- (도 급 사) 복수의 시공사 (중국 교통건설공사 CCCC 포함)
- (사 업 비) Estimated USD 9.5 billion
- (편 당) 세계은행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EU, 중국 수출입은행, 참여국 예산
- (사업내용)
 - 목표: 에티오피아, 케냐, 소말리아, 남수단 등 아프리카 뿔 지역의 무역, 안보, 경제 통합 강화
 - 내용:
 - 다와강(Rhamu 및 Suftu 지역)에 교량 2개 건설: 주민의 시장, 의료, 교육 접근성 개선
 - 도로·철도망 구축: 케냐 몸바사 →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및 소말리아 모가디슈 연결
 - 국경 원스톱 통관소(OSBP): Rhamu 지역에 설치
 - 수프트(Suftu) 무역 촉진 센터 조성: 통상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
 - 항만 현대화: 케냐 몸바사, 라무, 소말릴란드 베르베라, 지부티 항만 개선
 - 국경 간 광통신망 구축: 디지털 서비스 및 인터넷 접근성 향상
 - 경제특구 개발: 교통 회랑 인근 산업지대 개발
 - 국경 무역 활성화: 원스톱 통관소를 통해 병목 해소
- (추진현황)
 - 2018년: IGAD 주도하에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사업 구상
 - 2020년: LAPSSET 회랑 일부로 라무항(케냐) 1~3번 부두 건설 진전
 - 2022년: 에티오피아-케냐 간 고속도로 구간 완공 → 연결성 개선
 - 2023년: 소말릴란드 베르베라항 확장 공사 70% 완료 (UAE DP World 자금 지원)
 - 2024년: 몸바사-나이로바-아디스아바바 고속도로 개선 진행 중 (일부 자금 부족으로 지연)
 - 2025년 6월 5일: 케냐-에티오피아 고위급 회의(IGAD 주관, 아디스아바바 개최) → 공동 성명 채택 및 사업 지속 추진 의지 재확인
 - 합의된 성과물: 교량, 연결도로, 통관소, 무역센터, 광통신망 구축 등
 - 향후 계획: IGAD를 통한 재원 조달, 설계 개발, 법적 절차, 입찰 추진 예정

○ (주요상황)

- 지부티 도랄레(Doraleh) 항만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지역 무역 역량이 강화됨.
- 라무항-남수단-에티오피아를 잇는 LAPSSET 회랑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순위로 간주됨.
- 소말리아의 보안 우려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철도 연결 사업이 지연됨.

22)

https://igad.int/joint-communique-between-the-federal-democratic-republic-of-ethiopia-and-the-republic-of-kenya-on-the-horn-of-africa-gateway-development-project-hoagdp-convened-under-the-auspices-of-the-intergovern/?utm_source=chatgpt.com

-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은 케냐-에티오피아 간 최종 연결망(last-mile) 구축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.
- 중국의 일대일로(BRI) 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-지부티 철도 구간 등 주요 철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.

③ Turkana Oil Project²³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케냐 정부 (에너지부 · 석유부), Tullow Oil 및 공동 투자사(Africa Oil, TotalEnergies, CNOOC)와 협력
- (도 급 사) Tullow Oil (운영사, 지분 50%)
Africa Oil, TotalEnergies, CNOOC가 공동 참여
- (사 업 비) 유전 개발계획(FDP) 검토 중.
최근 정부 예산으로 준비작업에 KES 16.7억(약 미화 1,290만 달러) 배정됨
- (편 당) 초기 준비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,
FDP 승인 후 민간 투자 및 해외 파트너로부터 자금 유치 예정
- (사업내용)
 - 유전개발계획(FDP): 2025년 6월 30일까지 에너지부 장관 및 에너지석유규제청(EPRA)의 승인 필요. 최종 FDP는 향후 투자 및 이행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.
 - 유전 생산량: 하루 약 120,000배럴 목표. Lokichar에 위치한 중앙 처리 시설로 이송 예정
 - 송유관 구성: Lokichar-Lamu 간 약 970km(약 554마일)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예정
 - 인프라 범위: 유전 시설, 송유관, 라무항을 통한 수출 역량을 포함하며 LAPSSET 회랑과 일부 연계됨
- (추진현황)
 - 2025년 5월: 케냐 정부는 2025-26 회계연도 예산에서 총 KES 16.7억을 편성
 - FDP 승인 관련 비용: KES 8.9억
 - 유전 준비작업 비용: KES 7.8억
 - 2025년 6월: 에너지부 장관 오피요 완다이(Opiyo Wandayi)는 2025년 6월 30일까지 FDP 승인 예정이며, 2026년 말 상업 생산 개시를 목표함을 발표
 - FDP 지연 경과: 2021년 12월 최초 제출 → 이후 2024년 3월, 2025년 6월로 다수 차례 일정 연기 (경제성 조정 작업으로 인한 지연)

○ (주요상황)

23)

<https://petroleum.go.ke/lokichar-oil-fields-turkana-projected-export-120000-barrels-crude-oil-day-upon-completion-lamu>

- 2025-26 회계연도 예산에서 FDP 준비자금에 2배로 증액되어,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.
- FDP 승인 임박: 6월 30일 마감 기한에 따라, 본 사업은 본격적인 전면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함.
- 2026년 말 상업적 원유 생산 개시가 예상되며, 이는 케냐가 석유 생산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임.
- Lokichar-Lamu 송유관 노선은 그대로 유지되며, FDP 승인 이후 상세 설계 및 공학 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.

③ Mwache Water Project²⁴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정부 산하 Coast Water Works Development Agency (CWWDA)
- (도 급 사) 미정 (설계-시공-운영 방식의 입찰 절차 진행 중)
- (사 업 비) 약 4억 9,000만 유로(EUR)
- (편 당) 유럽투자은행(EIB) 용자(1억 1,000만 유로), 케냐 정부 및 프랑스개발청(AFD) 추가 재원 (EFSD+/Global Gateway 보증 하에 조달)
- (사업내용)
 - 인프라 범위
 - Mwache 다목적 댐(상류 및 하류 조절댐) 건설과 원수 펌프가 포함된 정수장 설치
 - 몸바사 도섬(Island), 남부, 북부, 서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 송수관 3개 및 복수의 저수지 구축
 - 총 연장 48km 이상의 송수관(DN 400~DN 1200) 설치, Nguu Tatu 지역으로 연결되는 DN 800 파이프라인, 염소 소독 시설, 행정청사, SCADA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포함
 - 성과 및 영향
 - 약 80만 5,000명의 주민에게 식수 공급 예정, 이 중 약 48%는 여성 수혜자로 여성 포용에 중점
 - 하루 186,000m³의 공급 용량 확보, ESIA 프레임워크 내 수질 및 안전관리 조치 내재화
- (추진현황)
 - 2025년 3월: 유럽투자은행(EIB), 총 사업비 4억 9,000만 유로 중 1억 1,000만 유로의 금융 지원 공식 승인
 - 2025년 4월: 환경·사회 데이터 시트(ESDS) 및 환경사회영향평가(ESIA) 보완 문서 공개
 - 인허가 및 사회·환경 안전 조치 계획 완료
 - 2024년 8월: FIDIC 골드북(FIDIC Gold Book)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-시공-운영 방식(D-B-O) 구성요소에 대한 조달 절차 개시
 - 2025년 중반 이후: 부지 정비 및 건설 공사 입찰 진행 중, 시공업체 선정 단계에 있음

24) <https://www.eib.org/en/projects/pipelines/all/20220857>

○ (주요상황)

- 재원 확보 완료: EIB의 승인으로 몸바사 지역 수자원 인프라 역사상 최대 외부 투자 성사
- EFSD+/Global Gateway 보증 하에 사업 추진, 리스크 완화 및 민간 부문 참여 유도 가능
- 정교한 환경사회영향평가(ESIA), 이주 대책 프레임워크, 규제 준수 계획을 통해 환경·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조치 마련
- FIDIC 골드북 조건 하에 설계-시공-운영 방식의 입찰 공고 완료,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본격 전환됨을 의미

□ 2 협력센터 운영 보고

- 해당사항 없음